

불교중흥과 나라번영·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제전으로 승화 玉龍子 대길상도 예술성 세계가 극찬 인류평화와 불교중흥 역사의 큰 산맥



MBC TV 玉龍子 스님 대길상도 보도 장면.

九龍吐水



순제, 현대의 예서체, 역대 중국황제 필법 금석문체, 청대의 등서예체, 八大人사법과 화법, 제백석 필법 등 범서 작품을 연마하여 도와 예술의 심오한 경지를 작품을 통하여 성취하여 나라의 번영과 불교의 중흥, 세계의 평화를 축원하여 온 것이다.

玉龍子스님의 군마도 작품은 특히 유명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담력을 제외하면 작품을 소장코자 원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대제전 동참 불자 등을 위하여 작품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평성과 예술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 길상도를 한국조계종공사에서 순금과 순은으로 조성하여 불국정토 성취와 세계평화기원으로 전 세계에 전하는 역사적인 불사를 하고 있다. 대길상도 작품은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 인도대사관 등 국내외 여러 곳에 작품이 전시되어 소중하게 소장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불교의 중흥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젊은 세대를 위한 포교에 크나큰 관심이 있다. 바쁜 나날 가운데 군부대 수계법회와 위문에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인다.

1990년에는 육군 39사단 군법당 안국사 중창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육군에 기증하여 군 불교 발전에 큰 획을 그이기도 하였으며, 국군 최정예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맹호부대 법당 삼존불 점안법회를 증명법문하고 한국 불교 최대 수계전법 도량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도 수차례 걸쳐 봉행하여 왔으며 군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다. 또한 불보살상 대길상도 호신불을 시민과 불자, 군경, 학생 등에게 무수히 보시하여 왔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제전과 제1회 대제전 이후 주한 인도대사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사산



중생의 병고소멸을 기원한 길상도인 '악왕구룡 3천년 전도'.



불교문화 대제전 玉龍子 대길상도전 SBS뉴스 보도 장면.

-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김명근 문화관광부장관,
- 청와대 불자회장 김병준 정책실장, 국회정각회장 이용희 의원,
- 이미경 국회문화관광위원회장, 안홍준 국회정각회 간사,
- 열린우리당 이타회장 윤원호 의원, N파르타 싸라디 주한인도대사,
- 이근식 의원, 이종구 의원 등 각계인사 축하의 뜻 동참

있는 예도 다수 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 작품의장은 국내는 물론 심사의 규정과 과정이 엄정하기로 정평 있는 미국 연방정부와 일본정부 특례형의 특허 인증을 다수 획득하여 작품세계의 국제적 보



玉龍子 석지형 스님은 수시로 군법당 법회에 참석하여 육군훈련소 3000여명 수계법회

크 전 인도대사, 산토시구마 전 인도대사, 파르다 싸라디 레이 전 인도대사, 그리고 앤 파르다 싸라디 현 인도대사 등이 계속하여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길상도제전에 동참하여 온 것이다. 현재 주한 인도 대사관 대사실에는 순금분으로 조성된 대형 용마도가 장엄하게 소장되어 있다.

제1회 대제전부터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청와대 불자회, 국회정각회,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불교TV, BBS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 대한불교, 주간불교, 만불신문 등과 함께 관계기관의 후원과 협조로 봉행되어 왔다. 금년 들어 제11회 제전을 원만히 회향한 玉龍子 대길상도 작품전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제전으로 확고히 정착되었으며 나라번영과 통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전 불교적, 세계적 제전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20여년간 길상도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봄에 봉행한 제1회 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9대 종정 月下대종사께서 친히 임석 증명법어를 전하시고 대통령께서 축전으로 축하 동참하였으며, 금번 11회 제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께서 법어를 대제전에 전하여 축하하였으며, 금번 11회 제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께서 법어를 치사로 전하시어 심축하시고 사부대중의 가슴에 크나큰 환희심이 충만케 하였다. 대제전은 그동안 제1회 제전 당시 이수성 국무총리, 김태을 불교TV대표이사,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조해형 불교방송사장 등이 동참한 이래, 2002월드컵 정몽준 조직위원장,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제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근 문화관광부 장관, 홍기삼 동국대학교 총장, 문화상 열린우리당 의장, 전 한나라당 이화창 총재,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등 각계인사가 축하 동참하였으며, 시인 고은 선생, 류시화 선생, 서울대 미대 임태정 교수, 미술평론가 윤병모 박사, 철학자 김형호 박사, 동국대 서윤길 박사, 정병조 교수 등이 대길상도제의 기념강연에 동참하였다. 길상은 법구비유경 제4권에 설하여져 있다. 길상도는 수천년 전부터 특히 중국에서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다. 玉龍子스님 작품세계는 길상도와 함께 왕희지체 서법, 안진경체, 구양

불교와 민족의 역사에 영광스런 회향할 것 종단 대덕 큰 스님들의 동참·격려에 감사

봉행사



書之氣 必達乎道. 서의 기는 반드시 도에 이르러야 한다. 서성(書聖)으로 일컬어지는 왕희지의 書訣로서 붓을 들고 글을 쓸 때 반드시 道의 흐름속에서 해야 하는 것임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당의 목종황제와의 문답에서 당대 명필 유공권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用筆依心 心正筆正 乃可爲法. 용필은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이 바르면 붓이 바르게 된다고 함은 법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답사하여 마음속의 속되고 탁한것을 벗어버리고서야 작품에 임할 수 있다는 옛사람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會心 山水眞如畫 巧手丹青似眞. 山水를 정관하니 정말 그림같고 영묘한 기교로 그린 그림은 진짜 山水 같다. 사혁(謝赫)은 전이모사(傳移模寫)를 고개지는 전신사조(傳神寫照)를 말하였습니다. 깨우침의 길로 들어서는 선삼매적 용필속에서 길상도가 태어납니다. 로맹은 예술의 본질은 표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보살님의 우주적 진리세계를 이세상 중생계의 모습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표현해 내는 것이 길상도의 과제입니다. 수행과 전법으로 바쁜 나날의 삶가운데 호흡을 가다듬고 붓을 잡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至聖의 순간임을 느낍니다. 왕희지의 후손인 대서법가 지영(智永)선사는 영혼사 누각에서 30여년간 내려오지 않고 붓수천개가 다 닳도록 두꺼운 베틀이 다 닳아 절구같이 되도록 연마하고서야 一家를 이루었으니 도와 예술의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一生을 다바쳐 끊임없이 정진하고서야 가능한 입임을 알았습니다. 서성 왕희지의 진적 난 정서를 품에 안고 환희하면 당태종 이세민은 심지어 말 진동에 벼루를 싣고 다니며 말타고 행군하면 서도 글을 썼다하니 옛사람의 자기완성을 향한 치열한 구도적 수련은 참으로 본받을만 하다 하겠습니까. 천하제일 선문조종 중국 송산 소림사의 산문 현판글씨 少林寺 세자를 훌륭한 필력으로 쓴 청(淸)의 강희황제는 5000년 中國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길상도에는 불보살님께 올리는 중생성불의 염원이 깃들여 있습니다. 한점 한점의 작품마다 일생을 다 모두어 바치는 정성을 쏟아붓고 불보살님께 기도축원을 올립니다.

1996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月下대종사님을 모시고 제1회 제전을 마련한 이후 금번 제11회 제전에 이르도록 대길상도와 대제전에 인연맺으신 모든 분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영축산 산중과 종단의 여러 대덕 큰스님의 배려와 격려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금년 제전에 축하의 뜻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큰스님께서 소중한 치사를 법음으로 전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 환희심이 넘쳐날것입니다.

이끌어주시는 여러 훌륭한 선배 대덕큰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도반 후학스님 여러분자님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불에는 보답하고 모든 공덕을 사부대중 여러분과 영광스런 불교와 민족의 역사에 회향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부처님 오시는 길에 길상도와 꽃을 헌양이 뿌려 공양올리며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공덕이 증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0년 4월 20일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집행위원장 玉龍子 석지형

대길상 선화작품 세계적 높이 평가

축사



솔레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 된 문화예술축제로서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다함께 되새겨 보면서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선사화 길상도 작품전'은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오랜 기간 새로이 불교예술의 영역을 개척하여 한국불교 미술의 진면목을 세상에 보여 주고 있는 훌륭한 전시회로서, '법구비유경'의 내용에서 비롯된 대길상 선화작품의 예술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평가 받아왔습니다.

불보살님의 무량한 대자대비의 원력을 표현하는 길상도 작품을 통해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심오한 예술세계와 철저한 구도정진을 접해보면서 길상도의 맑고 밝은 기운이 모두의 마음에 참 빛으로 다가오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묘한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세상에 오신 날을 봉축하고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불교문화대제전이 해를 더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50년 4월 20일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근

높은 수행 정진과 훌륭한 자비 이타행

축사



를 이 곳 중생계에 펼쳐놓으신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노고에 마음으로 우리나라는 봉축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인연 불자와 봉축을 함께 맞이 하고 문화대전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 스님의 수행정진과 자비이타행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비롯함이 없는 영경부터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으로 말미암아 분래의 성품을 등지고 갈등과 대립속에서 나만 잡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법석은 과거의 그릇됨을 과감히 버리고 자비와 나눔을 베풀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봉축하며 제 11회 불교문화대제전 대길상선화 작품 대법회가 성공적으로 회향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불자들이 나라와 가정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가피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0년 4월 20일 국회정각회 회장 이용희

국민적인 문화축제 단결·화합하는 계기

축사



상도 작품전을 봉행하신 玉龍子 석지형 스님. 이 곳 성스러운 법석에서 대길상도 작품을 통해 평화통일이 성취되고 불자와 국민 모두에게 행운과 번영, 성취와 승리의 기운이 증만하시길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玉龍子 스님께서 세계평화와 민족번영의 염원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밤새워 정진하며 기도로 조성하였다는 데 매우 뜻깊고 감동의 환희가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아집과 배타심을 버리고 행복하고 참된 삶을 누리도록 설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사람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나와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가 진정한 깨달음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길상도의 고귀한 정신을 받들어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입니다. 봉축기념 불교문화대제전을 사부대중과 함께 축하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0년 4월 20일 열린 우리당 의장 정동영

1996년 거행된 제1회 제전 이후 금번 제11회 제전에 이르도록 협조와 후원을 함께해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청와대 불자회, 국회정각회, 주한미국대사관, 주한인도대사관, KBS, MBC, SBS, 불교TV, BBS불교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대한불교, 주간불교, 만불신문, 조

신일보, 동아일보, 각급 언론 등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11년 동안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행사의 원만한 성취에 기여하신

롯데그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참해주신 시민과 불자 전 세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더욱 초발심으로 옹양정진하여 불교중흥과 나라번영, 세계평화의 길에 정성을 다할 것임을 서원합니다.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집행위원회 합창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인사말씀